

목포 상하수도 시설 대대적 확충



목포시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들어간다. 12일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유지관리용역을 발주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용도폐지 된 나주·함평·무안 등 수도용지 388필지 9만6495㎡를 매각한다.

노후 관 교체 유수율 높이기
달리도·율도 해저관로 매설
입암천 생태하천 조성 나서
불용재산 매각 재정 건전화도

또 상수도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올해 140억원을 투입해 달리도와 율도 등 2개 섬의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들어간다.

이어 매년 악취로 고질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입암천을 서울의 청계천 부럽지 않은 친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일명 ‘목포의 청계천’조성 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총 100억원이 투입돼 총 연장 1.27km에 폭 15~25m의 입암천을 완전히 건너내고 단면도상 3단계 계단 형태를 띤 사실상 인공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업단은 지난 2009년~2015년까지 21억6700만원을 투자해 총 46개 블록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해 679개소의 누수를 막아 수도물 71억%600만원어치를 절감했다.

목포시의 유수율은 2015년 기준 78.78%로 전남 평균 67%에는 앞서고 있으나 전국 평균 83.7%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올해 4억9000만원을 들여 49개 블록의 유량과 수압관리, 취약지역 14개 블록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 관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단은 블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상화로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향후 지속적인 유수율 향상을 통한 수도행정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처럼 사업단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상수도 사업 회계의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부과되는 목포시의 ㎡당 수도요금은 720원인 반면 ㎡당 생산원가는 950원으로 요금 적정화율이 75%(2015년 결산 기준)에 그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다 지자체와 비교에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이 시급하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현재 목포시 관내 매설된 수도관은 총 309km로, 이 가운데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된 관만 135km에 달한다. 이들 노후 관에서 연간 262만 톤의 수도물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사업단은 노후관 교체를 위해 2014년 12억, 2015년 16억, 2016년 15억을 투입했으며, 올해도 10억여 원을 들여 9.1km의 수도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사업비 265억)과 복합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사업비 106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하수관거 시설 확충 등 구조적 요인과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맞물려 적자 경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 일제정리와 불용재산 매각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는 남악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비 69억원을 들여 1일 1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환경평가 조건부 통과

2개 노선 시민 대면 여론조사
유달산 경관 영향 최소화 등

목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 사전 환경영향평가(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조건부의 주요 내용은 ▲목포시가 제출한 노선과 노적봉에서 출발하는 노선(영산강 환경유역청의 제안) 등 2가지 안에 대한 목포시민의 대면 여론조사 실시 ▲유달산 메인타워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 ▲탐방객 증가로 환경훼손 우려돼 상부 정류장에서 일정구간만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 설치 연구 등 3가지다.

대면 여론조사와 관련해 목포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 중인 ‘2017 동청보고회 및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이용해 사업 설명회와 함께 선호 노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노적봉에서 출발하는 안은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선이 단조로워 경관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아 유달



산 5부 능선을 통과하는 목포시 안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목포시는 이와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성한 설문지를 제작해 목포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 등을 찾아가 직접 대면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목포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총 2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검토와 의견을 거

쳐 노선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달산 메인타워 경관영향 최소화 및 일정 구간 탐방로 설치에 대해서는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기로 했다.

한편 목포시는 3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거쳐 6월 중에 해상케이블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영국 아버딘시와 우호도시 협약

목포시가 영국 아버딘시와 국제 우호도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목포시는 12일 “아버딘 시 조지 아담 시장과 야사 라트나에게 성과기금 관리 최고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일 목포시청 상합실에서 국제 우호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시는 공공 및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공식관계를 수립하고, 매년 양 시에서 교차 회의를 개최해 경제민간분야, 유망기업 정보 등을 교환할 계획이다.

박홍률 시장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해양공학, 교육 분야의 기업성과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양 도시 간 우호의 폭을 넓혀가겠다”며 “앞으로 세라믹 산단과 대양산단 분야를 위한 벤치마킹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딘시는 영국 북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23만명의 도시로, 조선업·해양플랜트·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도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여성단체협의회

정혜란 회장 취임

목포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 정혜란(62·사진)씨가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지난 10일 취임한 정 회장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여성계도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단체로 주위를 살피고 목포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상리사회복지관장, 한국부인회 목포지회장, 전남 생명의 숲 상임대표, 목포시 민간어린이집협의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등 여성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평이다.

한편 목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여성단체 문화교류 사업 ▲시민 걷기 행사 ▲목포 희망행복 나눔 행사 ▲건강한 밥상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학교체육 활성화 ‘1학교 1운동부’ 지원

목포시가 학교체육 활성화와 운동부 육성을 위해 1학교 1운동부 지원에 나선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12개 중목 24개 팀에게 총 1억4700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육성 중인 24개 팀에게 팀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선수 1인당 초등학교는 18만원, 중학교는 23만원, 고등학교는 28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점 육성 팀에게는 팀당 300만원을, 신규 창단 팀에게는 창단 후 3년간 매

년 300만원을 지원하고 해양스포츠 관련 팀에게는 창단 연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목포공고 축구팀과 목포고 유도부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대회 상위 입상 팀에게도 팀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목포시 관내 운동부를 육성 중인 초·중고는 모두 20개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